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교수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진보개혁 성향의 인사마저도
기성정치인 구태답습 해서야
정치윤리문화 점점 시급한 때
절차적 정의는 공정사회 필수

#장면 하나.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대회초반부터 김이 빠지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100m 경주에서 부정출발 때문에 실격처리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열린던 날 많은 육상 팬들은 부상을 극복하고 일어난 우사인 볼트가 세계신기록을 세워 주기를 내심 기대하며, 너도 나도 숨을 죽인 채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우사인 볼트의 어이없는 실수로 말미암아 관중들과 당사자인 볼트 모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청자들은 그가 유니폼을 벗어던진 채 경기장 안팎을 실성한 듯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금메달은 그의 팀 동료인 요한 블레이크가 차지하게 됐다. 우사인 볼트의 멋진 질주를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과 실망감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비시해보면 그는 처음부터 규정에 어긋나는 부정출발을 했던 셈이다. 운동경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실격되지는 않았지만, 우사인 볼트의 경기를 주시하던 관중들이 그의 부정출발에 한숨을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볼트의 진보개혁정책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던 많은 국민들의 낙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누구인가. 그는 진보와 보수진영의 상반된 평가와는 별도로 '무상급식',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 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등의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말 그대로 스타 교육감이었다. 그의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얼마 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주민투표로 이어진 바 있고, 결과적으로 개표총족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정지적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하게 이르렀다. 그만큼 곽노현 교육감은 말 그대로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화제의 인물이었다. 그런 곽노현 교육감이 우사인 볼트와 마찬가지로 부정출발 시비에 휩싸이고 만 것이다.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사인 볼트와 마찬가지로 실격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 또한 자신이 가진 기량을 제대로

로 펴보지도 못하고 실격 처리된 세계적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는 말이다. 어쩌면 직접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실정치에 비추어 볼 때, 곽노현 교육감의 처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다. 그러나 다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손을 놓고 지켜볼 일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청렴도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제기구들의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그동안 기득권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보수집권층의 모럴 해저드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그와 유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같은 진보개혁성향 인사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역시 기성 정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되었다면, 우리사회의 정치윤리문화를 정말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주지하다시피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단계이다. 이제 우리도 이 정도의 민주주의 지식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만한 능력을 갖춘 사회가 되었다고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社說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말이 맞다

8월 31일 한국불교중앙회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1700년 불교문화 어떻게 보면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된 행사에서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유 前 청장은 "지금의 불사는 전문업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굴불사도 문제고, 사찰의 조정 또한 공공적 성격을 잃지 말라"는 유 前 청장의 지적은 유익한 지적이 아닐까? 유 前 청장은 "불사와 관련하여 불교계는 문화재청에 내 절집을 왜 탐대로 하지 못하느냐고 불만이나 고소나감만 하지 말고 불교계는 일정한 규제"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불교계만 가혹하게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양 볼텐소리를 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서는 절집이 아니어도 자기 땅임에도 마음대로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가? 문제는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의 여

부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경색된 조계종과의 관계 해소에 즈음해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조계종은 불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호뿐이다. 9월 1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인 운영자살 주주회의를 열고 '템플스테이 이차차지정및운영규정'의 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행스럽다. 1980년대 세간에서 아파트 등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사찰에서는 중창불사 바람이 불었다. 이 때 불사가 현대적 편의에만 치중되다 보니 불교의 전통과 가치를 잃은 사찰의 수가 적지 않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 불교계에는 또 한 번 바람이 분다. 똑같은 아첨이 아니라도 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젓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10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여부는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의 진실성에 달려있다.

'불교 상제례 안내' 발간이 시작이다

한가위가 되면 집집마다 차례를 지낸다.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유교식으로 차례를 모시지만, 차례의 시작은 불교이다. 신라시대 충당 스님이 마곡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것이 차례의 유래이다. 이를 그대로 차를 올려 차례(茶禮)였지만, 조선시대 영조의 "비싼 차 대신 술이나 뜨거운 물을 올리라"는 어명에 차 대신 곡차(茶)차례상에 오르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펴낸 <불교 상제례 안내>는 불자들이 모르는 불교 상제례를 널리 유통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2008년부터 불교상제례문화위원회를 구

상해 연구·정리해 왔다. 3년 여의 성과가 한 권의 책에 집대성됐지만 정작 불교 상제례를 위한 불사는 이제 시작이다. 개인의 습관이 고치기 어렵듯 사회의 관습 역시 바꾸기 어렵다. 더욱이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참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까지 있으니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잘못됐다" "바르게 해야 한다"고 외쳐 봐야 실제로 바뀌어 내지 못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포교원은 불교 상제례 정착을 위해 신행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또한 공염불이 아니기를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법현 스님
열린선원 원장,
대교종 前 부원장

제사 공덕... 조상에 1/7
후손에게 6/7 돌아간다
조상과 웃어른 공경은
신구세대 소통의 첩경

조상님께 차(茶) 올리는 행복한 추석을

"자기들이 귀신을 보거나 했나? 자기들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는 일이지!" 제사를 지내고 음복주(飲福酒)를 마실 때면 취기가 오른 속가 아버지께서 내뱉는 말이 참 재미있다. 그 때는 '왜 아이들 앞에서 조상을 위한 생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출가 후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제사를 지내면 효과의 1/7만 조상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7은 제사를 지내는 후손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보고 무릎을 쳤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생들과 함께 둘러앉으면 아버지는 "조상님을 위해야 한다. 하나의 젓가락은 부러뜨리기 쉽지만 서너 개만 모여도 부러뜨릴 수 없듯이 풍채야 한다. 친구를 사귀는 때는 마음으로 사귀고, 전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는 '유·세·차...복유상향'은 모르고 "술 올리고 절하고 마지자"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분이셨다. 그 정신만큼은 공자, 주자에 못지않았던 분이셨다. (지장보살본원경)

을 보면서 더욱 그 믿음이 강해졌다. (유행경)에는 "자주 모여 바른 일을 의논하고 공평정대하고 뒷사람을 공경하며, 예의를 존중하고,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존중하며, 조상의 유업 잇기에 노력하고 도덕적이며 수행자를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부지런한 나라는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제사와 차례를 통해 조상님과 웃어른을 위하는 것은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나라도 어려워지지 않고 발전하는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와 차례의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확신 없이 그냥 지내는 가정이 너무 많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물론 집집마다 전통과 예절이 다르다는 가가례(家家禮)의 원인이 있으나 일제와 이승만 정권의 전통무시정책 그리고 서양 기독교 등 다른 종교가 많이 들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현재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안마다 순서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

가는 언어맞기 심상이라한다. 하지만 언어맞을 때는 언어맞더라도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굳이 가지지 마라. 모든 것을 조상님들을 중심으로 살아 계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해도 맞는 의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사 책을 보고 그대로 하더라도 틀린 것이 돼버린다. 차례를 지내면서 더 생각할 것은 첫째, 조상님들이 잠수시라고 드린 시간동안에 조상의 타성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할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며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 등을 둘러앉아서 이야기 한다던 더 없이 좋은 시간이 된다. 둘째, 명절만 되면 여성들이 '명절증후군'이라는 이상한 병 아닌 증상이 생긴다는데 일 년에 두 번 어려운 일을 한다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했으면 한다. 셋째, 남성들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고 즐기면 하려들지 말고 음식 그릇 하나도 돌리지 말고 나눠주면서 힘내야. 누이들을 격려해주면 다 같이 즐거운 평화의 명절이 되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hyunbul.com
FAX (02)737-0698 www.hyunbul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시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부 산 지 사 | 이 재 진 | 051)632-0064
011-488-7745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011-9642-7733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011-870-0021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엔투스·인터파크·알리파크·에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호사육임강론 2011개정판 45만원
제8판본 상·하 권 5만원
·호사육임사주강점 2011개정 2판본 1권 5만원
·호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5만원
◆ 육임 활용서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5만원
제5판본 1권
·육임대경비법 2011개정판 35만원
제6판본 1권 좌정용
·육임대경비법 2011개정판 35만원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육임풍수 2011개정판 25만원
제2판본 1권 좌정용
·육임풍수 2011개정판 25만원
제2판본 1권 휴대용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5만원
제5판본 1권
·출산길임길사선택비법 2011 5만원
제3판정권본 1권
·육임년신수리법 2011개정판 15만원
제2판본 1권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수법 CD프로그램 ◆
·호사육임전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호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90만원
·호사육임산책 2011완결최종판 70만원
·호사육임산책 2011완결최종판 70만원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20만원
제5판본 1권 수록
·호사육임상생합강점 2011정권 20만원
제5판본 1권 수록
·호사육임산책 2011정권 30만원
제2판본 1권 수록
·호사육임년신수리법 2011개정판 30만원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매월역수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월령도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성명학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정통부적보감 2011정권판 수록 5만원
·토정비결수서 5만원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타 ◆
·호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분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고귀명수 5만원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육임본전집 좌정용 전6권 250만원
정가250만원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250만원
정가250만원
·호사육임전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500만원
정가500만원
·호사육임강의CD100개 경가 120만원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대회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내는 방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秘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해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여려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야만 하는가?
④ 대야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 있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1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